

미국의 對이란 제재 ‘스냅백’ 부활과 시사점

서상현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unisa21@posri.re.kr)
박현성 연구위원보, 글로벌연구센터 (handsome@posri.re.kr)

목차

1.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활
2. 이란 제재의 영향 분석
3.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11월 5일부터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2016년 '이란 핵 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전으로 부활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고 각각 90일과 180일의 제재유예 기간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음
- 금번 제재는 2단계로서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됨(1단계 제재는 8월 6일부터 개시된 바 있음)
 - 1단계 제재 주요 항목은 이란정부의 미 달러 접근금지와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과 금 등 귀금속 거래 금지, 그리고 이란 자동차 및 항공 산업 제재 등임
 - 2단계 제재에는 이란 수출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원유거래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미국의 '스냅백(이란의 JCPOA 위반 시 핵 합의 이전 제재상태로 복귀)' 제재 부활로 이란 경제는 1단계 제재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이란경제는 '17년 12.5% 성장에서 '18년 △1.5%, '19년 △3.6%로 악화 전망
 - 또한 원유수출도 4월의 일일 270만 배럴에서 11월에는 180만 배럴로 하락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음
- 이란원유 수출급감으로 국제유가의 급격한 인상이 전망되었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와 러시아, 사우디, 미국 등의 대체생산 증가로 유가는 현 시세 유지 중
 - 그러나 이란 원유수출 감소 장기화時 유가는 배럴당 U\$100까지 상승도 전망됨
- 미 제재로 한국의 대이란 교역감소 및 건설플랜트 진출은 타격이 불가피
 - 대이란 교역은 주력상품인 자동차, 철강 수출 중단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였음
 - 또한 건설사들은 既 수주 플랜트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란사업 철수 중
-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는 국내 기업들의 이란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따라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여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란 사무소 최소 유지 등 향후 사업지속 검토 필요
 - 또한 이란 기업과는 인적 네트워크와 거래선 유지 노력을 통해 제재해제 이후의 우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

1. 미국의 對이란 제재 부활

□ 11월 5일부터 미국의 對이란 제재가 2016년 '이란 핵 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전 상태로 완전히 부활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공식화하였고 각각 90일과 180일의 제재유예 기간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한다고 선언하였음

-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됨
- 미국의 의도는 '최고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역내 군사 개입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핵 합의 내용에 포함하겠다는 것임

* 이란 핵 협정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나 개인 및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2015년 합의에 참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란 핵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함
- 이란 역시 미국의 핵 합의 철회는 결국 유가상승 등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함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는 세계경제 충격을 고려하여 단계별 유예기간 이후 시행됨

○ 먼저 90일 유예기간 이후 실시된 1단계 제재는 지난 8월 6일 시행되었음

- 1단계 제재 주요 항목은 이란정부의 美 달러 접근금지와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산업과 금 등 귀금속 거래 금지, 그리고 이란 자동차 및 항공 산업 제재 등이었으며, 1단계 제재를 통해 이란의 산업 및 대외무역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음

○ 2단계 제재는 180일 유예기간이 끝난 11월 5일 시행되었으며, 이는 2016년 1월 시행된 '이란 핵 협정'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임

- 2단계 제재의 주요 항목에는 이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에너지 관련 거래

제한과 이란의 수송 및 조선산업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됨

- 특히 이란 원유 거래의 제한은 이란 수출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원유수출을 막음으로써 이란의 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사항〉

구분	제재 복원 내용
‘18.8.6 이후 (90 일 유예)	-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 귀금속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 - 이란 화폐(리알)의 매입 및 송금 거래 금지 - 이란의 국채 발행에 관련된 행위 - 이란의 자동차 제재 및 부품 거래 금지
‘18.11.5 이후 (180 일 유예)	- 이란의 항만 운영사업과 에너지, 수송, 조선산업 제재 - 이란의 원유, 석유화학제품 수출 등 에너지 관련 거래 제한 - 외국 금융기관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제한

출처: 주요 일간지 정리

2. 이란 제재의 영향 분석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스냅백’* 부활로 2016년 이후 되살아나고 있는 이란 경제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 높음 *스냅백(Snap Back): 이란이 JCPOA를 어겼다고 판단했을 때 핵 합의 이전의 제재로 되돌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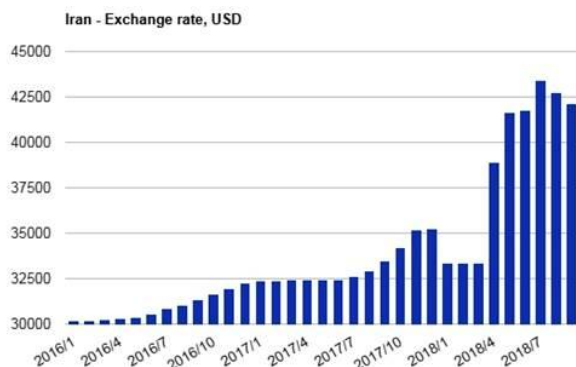
- 또한 미-이란 긴장고조 및 중동정세 불안이 예상되며, 이란산 원유거래 금지에 따른 유가인상 등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① 이란 경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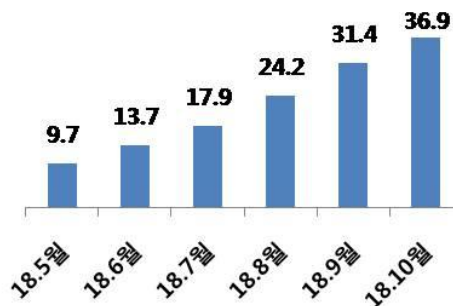
□ 2017년 12.5% 고성장을 기록했던 이란 경제가 올해부터는 미국의 제재로 악화될 전망이다

- 최근 IMF 발표(10월)에 따르면, 이란의 GDP성장률은 2018년 △1.5%, 2019년에는 △3.6%로 악화될 전망이다
 - 이미 미국제재 본격화로 이란 리알화의 가치 하락 가속과 물가 상승 및 수출 감소, 실업률 증가 등 경제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고물가 및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 등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정치, 사회적 불안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

<이란 리알화 가치 변동(U\$대비)>



<인플레이션 현황(%)>



출처: GlobalEconomy.com

- 이에 따라 이란 진출 주요 외국기업들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석유, 항공, 자동차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프랑스의 토탈과 화공 및 발전 기자재 납품을 하던 독일 지멘스, 알스통 등이 이란과의 거래 중단 발표
 - PSA와 르노 등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도 이란 사업의 철수 혹은 축소 결정
 - PSA는 이란 자동차 최대 생산회사로 연간 약 45만대 판매('17년 기준)
 - 이 밖에 각각 100대의 항공기를 납품하려던 에어버스와 보잉 등도 이란과의 사업거래 중단
- 금융시장 불안 및 외국인투자 철회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5개년 경제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
 - 6차 경제계획에는 △매년 8%의 경제성장률 달성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구현을 위해 민간영역의 능력 활용 △외국인 직접 투자 장려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본격적인 제재 여파로 과거 '12~'15년 장기 경제침체의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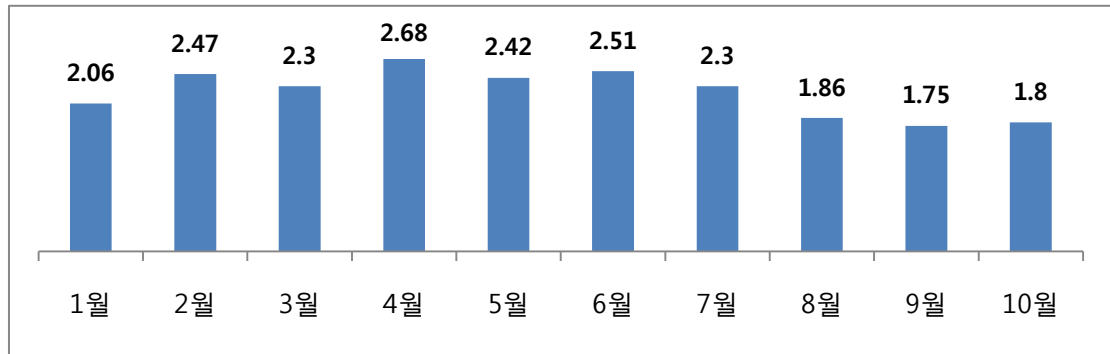
② 유가동향

□ 미국의 이란 원유거래 제재로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와 대체 생산 능력 증대로 현 수준 유지 전망

- 이란의 일일 원유수출은 제재이전 최대 270만 배럴 수준에서 미국 제재가 본격화한 10월말 기준 일일 18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임

-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선언함
- 2012~2015년 미국 및 유엔 제재 당시 이란의 원유수출은 일일 100만 배럴 이하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음

〈이란의 일일 원유수출 추이('18년, 백만 b/d)〉



출처: CNBC, '18.10.30

- 이란은 그동안 거래하지 않았던 민간기업에 원유를 판매하고 **‘유령 유조선’*** 등을 활용하여 일일 100만 배럴 이상 수출할 것이라고 자신함
 - * 유령 유조선: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선박 위치 추적장치를 끈 상태로 운행하는 유조선
-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이란의 원유수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수입을 줄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7월 이후 이란산 원유도입을 중지하고 있음
 - EU는 새로운 원유결재방식 도입 등 이란산 원유수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아 이란산 원유수입은 감소추세
 - 주요 국가들의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으로 10월 이란의 원유수출은 올해 평균 일일 26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 감소한 180만 배럴로 나타남
- 미국의 제재로 이란산 원유수출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내년 초에는 일일 10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그러나 이란 원유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U\$70~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U\$78를 유지할 전망 (브렌트유 기준, Arab News, 2018.10.31)
 - 이는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라 원유 수요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이란산을 대체하기 위해 사우디, 러시아, 미국 등이 증산에 나서는 등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

- 또한 미국은 국제유가 충격완화를 위해 중국, 인도, 한국 등 8개국을 180일간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국으로 지정하여, 이들 국가는 당분간 수입 가능

〈최근 국제유가 추이〉

구분	2018. 05	2018. 06	2018. 07	2018. 08	2018. 09	2018. 10
두바이유	74.4	73.6	73.1	72.5	77.2	75.6
브렌트유	77.0	75.9	74.9	73.8	79.2	75.5
WTI	70.0	67.3	70.5	67.9	70.1	65.3

출처: CX-PORTAL.com *'18.10. 3일 유가는 4년 만 최고치인 U\$86.74를 기록

③ 한-이란 사업 영향

□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로 한국의 대이란 교역 및 투자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이란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8월 제재시행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 1~8월 대이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수입은 23.7% 각각 감소하였음
- 특히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60%, 냉연강판은 35%, 냉장고 62%, TV 50% 각각 감소하는 등 주요 수출품들이 급감함
- 국내 자동차사들은 올해 8월 이후 이란 수출을 중지하였고, 전자제품업체들도 대이란 거래를 대폭 줄이고 있음

〈한-이란 교역 현황(U\$십억)〉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
						1~12	1~8	
수출	6.26	4.5	4.2	3.73	3.72	4.03	2.66	2.07
수입	8.54	5.56	4.58	2.37	4.65	8.01	5.31	4.05
규모	14.8	10.05	8.74	6.1	8.37	12.04	7.97	6.12

출처: 한국무역협회

○ 이란 진출 주요 건설사들도 미국의 금융제재 여파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현대건설 및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수주한 U\$32억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대림산업도 U\$20억 규모의 이스파한 정유시설 증설 공사계약을 해지함
-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한 현지 파이낸싱 구성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임

3. 시사점

□ 금년 11월 5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동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

○ 특히 세컨더리 제재 부활로 국내 기업들은 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란에서의 사업이 위축될 전망

- 현재 對이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재, 가전 등의 수출은 대폭 감소되고 있으며, 이란 진출 주요 건설사들도 사무소 철수 등 이란에서의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임
- 또한 이번 제재에는 3국 간 거래 및 식량,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까지 거래 중단 품목에 포함되어, 주요 상사들의 거래도 대폭 감소한 상태임

□ 국내 기업들은 미국제재 부활로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시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어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당분간은 미-이란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타 중동국가들의 정세 또한 불안정할 전망으로 중동에서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

- 이란 인접시장으로 사우디, UAE, 이라크, 터키 등이 있으나 UAE를 제외하고는 정치 및 경제불안정으로 대체시장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
- 터키는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유한 매력적 시장이기는 하지만, 최근 환율 불안정 및 외국인 자금이탈 등으로 경제가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큰 리스크임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對이란 정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해제 때까지 최소한의 사무소 운영 유지가 바람직

- 특히 이란과의 경제적 거래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란 기업과는 인적 네트워크와 거래선 유지 노력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우호적 환경변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수출입” (<http://m.stat.kita.net/>)

CX-PORTAL.com (http://www.cx-portal.com/wti/oil_ko.html)

IMF, “World Economic Outlook: Iran”, October, 2018.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_WORLD/ITA/IRN)

[언론]

NEWSIS, “[美이란제재] 세계경제 • 유가에 미칠 영향은?”, 2018.11.2

Arab News, “Iran sanctions seen keeping oil above \$75”, 2018.10.31

CNBC, “Iran is still selling a lot of oil just days before Trump's sanctions deadline”, 2018.10.30

The Global Economy, “Iran: Exchange rate to USD”, 2018.11.3

(https://www.theglobaleconomy.com/Iran/exchange_rates/)